

現場에서

국내 유일의 사설 축산연구기관

한국축산과학연구소

범국가적인 식량차원에서 축산업은 더욱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금년 1월 축협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이와 때를 같이해 기존 연구기관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축산 윤도진사장에 의해 개인의 사재로 운영될 사설연구기관인 한국 축산과학연구소가 그 업무를 개시했다.

기자는 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아미리의 제일축산사료공장 신공장에 위치한 연구소를 찾아 여기에 한국 축산과학연구소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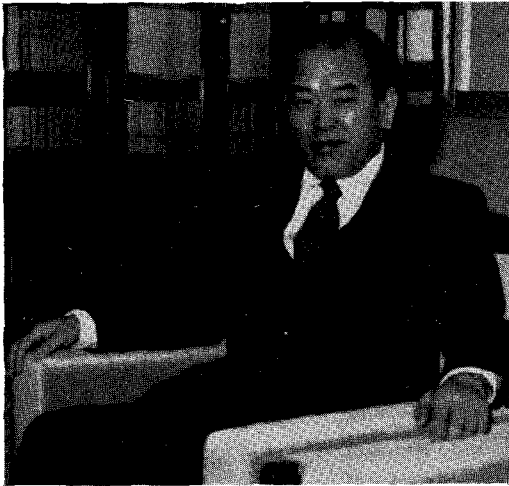
경영유통, 영양, 질병, 육종번식 가공 등 5개 연구실로 구성된 한국 축산과학연구소는 축산고급 인력양성과 국제교류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3일 현판식을 거행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그 업무에 들어갔다.

국립연구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 인적자원 등의 부족으로 그 병성 해명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막연히 그 근원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던중 윤도진 사장은 76년 국내 양돈불황시 자유중국 여행길에 대만 대당(大糖)공사 중앙연구소를 방문해 그곳에서 돼지의 영양, 유전, 질병, 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고 돌아

와 국내에도 그러한 연구기관이 필요하나 정부의 투자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 자신이 스스로 그런 길을 모색하겠다는 착상에서 시작되 지난 79년 사료공장 신공장을 착공하면서 계획이 구체화 되었다.

양돈중심으로 일선사양가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문 중점 연구

연구소는 실제로 일선의 사양가가 필드에 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부문에 따라 선별하여 특히 양돈에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과거 축산대학, 수의과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의 시설이 미비해 고급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 윤도진 사장 근영

여건조성을 위해 좋은 기재와 최신 외국서적 등을 구비한 실험실 및 도서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필요로 하면 국내 다른 연구기관이나 학제에도 개방을 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 기술 도입과 국제교류를 위해 연구원들의 해외 연수는 물론 2년마다 한번씩 국제 규모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세미나가 없는 해에는 국내세미나를 통해 타연구기관과 국내 학제와의 교류를 시도할 예정인데 올 해는 국제학술 세미나를 오는 4월 27일~28일 양일간 미국, 일본, 대만, 프랑스 학자들을 초빙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갖을 예정이다.

모든 연구는
수평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소는 현재 소장직무대리로 한인규박사(서울농대)를 초빙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경영유통 연구실(실장: 윤효직 전대축산대학장), 육가공연구실, 육종 번식 연구실(실장: 박영일 서울농대 교수), 방역위생 연구실(실장: 박응복 서울 수의대 교수), 영양학 연구실(실장: 한인규 서울농대교수) 등 5개 연구실과 전산실, 실험실, 도서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연구는 수평적인 연관

성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며 모든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최신형 컴퓨터의 도입과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국제적인 견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전문서적을 구입 비치하고, 정확한 자료분석을 위한 단백질 자동분석기, 조섬유분석기 등 기자재가 이미 작동중에 있고 특히 자동 단백질 분석기는 증류, 분해, 적정이 3시간내에 완전히 처리되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갖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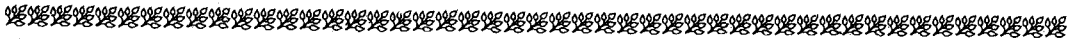


△ 지난해 12월 13일 한국축산과학연구소 현판식 현판식 광경(우로부터 윤도진 사장, 지설하 축산국장, 한인규 박사)

연구비는 제일축산 매출액의
1%로 충당

연구소는 년건평 250평의 3층 건물로 넓은 사무실 공간으로 환경을 좋게해 연구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배려하였으며 재원은 고정 투자를 3년간 4억여원 정도를 사재에서, 연구비 운영자금은 금년부터 제일축산의 사료를 제외한 양돈, 양계산물 매출액의 1% (금년 약 6천만원 예상)로 충당하게 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양돈업제는 ① 어떤 불황에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양돈업 ② 국제 경쟁력에 대처하는 양돈 ③ 수요있는 계획생산 ④ 맛과 가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돼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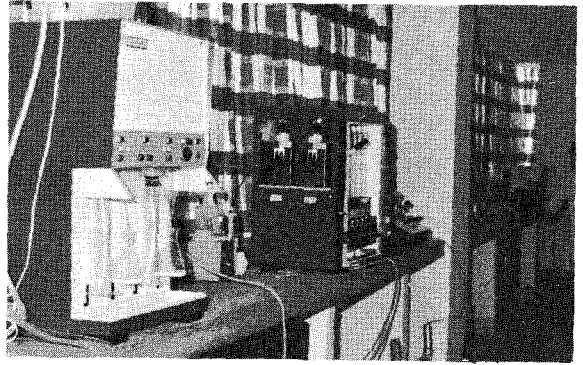


(맛은 쇠고기, 가격은 브로일러) ⑤ 유통 과정에 생산자 직접개입 ⑥ 생산자 스스로 양돈 사업을 지키기 위한 생산자 조직강화 등 과제를 놓고 연구노력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하는 축산을 하기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윤사장은 사람들도 걸으로는 건강해 보이나 종합건강진단을 해 보면 알지 못하는 속병이 발견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축산도 바로되어 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경영진단을 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객관성 있는 축산의 경영진단을 위한 바로 메타가 없어 하루 속히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경영진단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본 연구소 경영유통 연구실에서는 이미 그 작업에 착수하였

다. 또 영양연구실에서는 가장경제적인 효율사료를 만들기 위해 사양실험 및 정밀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부존자원의 원료개발과 당밀, 우지첨가, 펠렛사료 개발 등의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질병연구실에서는 자돈의 설사방지 연구와 국립연구소에서 해명하지 못하는 돈사의 질병들에 대한 질병표본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이며, 질병의 국제화에 대한 대처 등 치료는 물론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육종번식연구실에서는 2~30년 후의 장기적인 성과를 기다리며 산자수, 산육문제 등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중 취약점은 7~8년 후 많은 이익이 온다해도 장기적인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 현재 바로 부딪친 현실과 괴리된 연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혈통은 적어도 7~8대(7~8년)를 통해 고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행정, 예산, 인적자원 문제 등으로 정부 보다는 사업에서 번 돈을 사회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는 의미로 개인이 훨씬 쉬울 것 같다.



△ 정확한 자료분석을 위한 각종 분석 실험기구

육가공 연구실에서는 유통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불합리한 요소 제거와 장기적인 유통개선 사업을 위해 중점적인 연구활동을 할 예정 이란다.

.....
**일반양축농가에도 타당성
 여부 검토후
 시설 개방할 수 있어**

연구소는 이밖에도 그 동안 제일농장에서 과거 수년간 교잡실험, 사양실험 등에 대한 자료를 정밀분석, 정리해 책자로 발간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학계, 타연구기관외에 일반 양축농가에서 연구를 의뢰 또는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개방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사장은 “그러한 경우 타당성 여부를 면밀 검토후 타당성이 있으면 언제라도 개방할 용의가 있으나 현재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농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다”라고 답한다.

출범 4개월에 접어든 국내유일의 사설연구기관인 한국축산 과학연구소는 현재 4명의 비상근 연구실장들과 3명의 대학생 및 대학출신의 상근 연구보조원들이 질병과 영양, 기획 부문에서 활발히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다.

식량차원으로서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백배 천배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모든 축산인들의 이름으로 바라는 바이다 < 斗 >